

조선시대의 미인은 일본 에도시대의 미인이냐 오늘날의 한국미인과 달랐을까?: 미인도의 계측학적 분석

조현중 황 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whether the beauty of Chosun dynasty was different from that of Japanese Edo dynasty or present Korea by anthropometric analysis.

We analyzed faces of 6 portraits of beauty of Chosun dynasty and 5 of Japanese Edo dynasty, and 9 photographs of prize-winner in the beauty contest of Korea during resent 3 years. We measured the 20 anthropometric items on each portraits and calculated 17 proportional indices of the face.

Portraits of beauty of Chosun dynasty had the greater value on 1 proportion index(ratio of nasal width to intercanthal distance) and less value on 3 proportion index(ratio of horizontal dimension of palpebral fissure to intercanthal distance, Ratio of height of vermillion to transverse width of mouth, eye fissure inclination) than Edo dynasty. Portraits of beauty of Chosun dynasty had the greater value on 1 proportion index(ratio of height of upper eyelid to total facial height) and less value on 3 proportion index(ratio of vertical dimension of palpebral fissure to total facial height, ratio of nasal width to intercanthal distance, eye fissure inclination) than nine prize-winner of beauty contest of Korea.

In conclusion, beauty of Chosun dynasty has lower eye fissure inclination, wider nasal ala, and thinner lip than one of Edo dynasty. Beauty of Chosun dynasty has oriental eyelid, wider upper eyelid, narrower eye fissure, lower eye fissure inclination, narrower nasal ala than present beauty.

Key Words: Beauty, Portraits, Chosun dynasty, Edo dynasty, Present beauty

Was the Beauty of Chosun Dynasty Different from that of Japanese Edo Dynasty or Present Korea?: Anthropometric Analysis of Portraits

Hyung Jong Cho, M.D.,
Kun Hwang, M.D., Ph.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Address Correspondence : Kun Hwang,
M.D., Ph.D.,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Inha University Hospital, 7-206, Shinheung-
Dong, Choong-Gu, Incheon 400-711, Korea.
Tel: 032) 890-3514 / Fax: 032) 890-2918 /
E-mail: jokerhg@inha.ac.kr

I. 서 론

아름다움이란 진, 선과 함께 인간이 추구해온 가치의 하나로서 한 시대의 미관은 그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기도 한다.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양식이 변하고 경제적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사람들은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었고, 아울러 여성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요사이 한국미인의 기준도 서양인의 미적 감각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한국인의 이상적인 미적 표준치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 안면부 계측을 통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 졌고,¹⁻⁴ 조선 시대에는 초승달 눈썹과 축축한 눈매, 단정한 코에 앵두 같은 입술, 가름한 얼굴이 미인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지만,⁵ 조선시대와 현대미인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얼굴 계측을 통해 조선시대 미인도와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 현대 미인을 각각 비교하여, 조선시대 미인과 일본 에도시대, 조선시대 미인과 현대

미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II. 재료 및 방법

조선시대 미인도 6점(① 해남 녹우당 소장 미인도, 필자미상-19세기, ②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미인도, 필자미상-19세기, ③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운낭자상, 채용신, 1914, ④ 간송미술관 소장 미인도, 신윤복-19세기 초, ⑤ 일본 국립동경박물관 소장 미인도-작자미상-19세기, ⑥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미인도, 송수거사-19세기)⁵⁻⁶과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 5점(①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주시계미인도, 니시카와 스케노부 -18세기, ②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사당에선 기녀, 스즈키 하루노부-18세기, ③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동양의 미인들, 키타오 쉬게마사-18세기, ④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에도시대의 미인들, 오쿠무라 마사노부-18세기, ⑤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미인의 관상, 기타가와 우타마로-18세기)⁷ 및 최근 3년간 국내 미인대회에서 1.2.3위 입상한 9명의 한국여자 사진을 다음의 항목에 따라 계측하여, 표1에서 보이는 각각의 비로 나타내었다.

가. 계측항목

각 그림이나 사진에서 계측한 길이는 다음과 같다 (Fig. 1, Table I).

- ① 턱끝융기점(Gnathion;gn)-머리털시작점(Trichion;tr): 얼굴 높이
- ② 머리털시작점(tr)-눈섭활사이점(Glabella;g): 이마 높이
- ③ 눈섭활사이점(g)-코밑점(Subnasale;sn): 눈섭활사이에서 코밑점까지의 수직거리
- ④ 턱끝융기점(gn)-코밑점(sn): 턱끝융기점에서 코밑점까지의 수직거리
- ⑤ 윗눈확점(Orbitale superius;os)-윗눈꺼풀점(Palpebrale superius;ps): 윗눈꺼풀 높이
- ⑥ 윗눈꺼풀점(ps)-아래눈꺼풀점(Palpebrale inferius;pi): 눈의 폭
- ⑦ 코밑점(sn)-입중간점(Stomion;sto): 윗입술 높이
- ⑧ 윗입술점(Labiale superius;ls)-입중간점(sto): 상홍순의 높이
- ⑨ 입중간점(sto)-아래입술점(Labiale inferius;li): 하홍순의 높이
- ⑩ 구위점(Superaurale;sa)-귀아래점(Subaurale;sba): 귀길이

- ⑪ 안쪽눈구석점(Endocnathion;en)-가쪽눈구석점(Exocanthion; ex): 눈의 길이
- ⑫ 안쪽눈구석점(en)-안쪽눈구석점(en): 안쪽눈구석사이 길이
- ⑬ 안쪽눈구석사이 중간점(en-en/2)-코밑점(sn): 코 길이
- ⑭ 코방울점(Alare;al)-코방울점(al): 코방울폭
- ⑮ 입구석점(Cheilon;ch)-입구석점(ch): 입술 폭
- ⑯ 광대활점(Zygion)-광대활점(Zygion): 최대 얼굴 폭
- ⑰ 턱모서리점(Gonion;go)-턱모서리점(go): 아래턱 최대 폭
- ⑱ 인중능선점(Crista phiri;cph)-인중능선점(cph): 인중 폭
- ⑲ 눈틈새경사도(Eye fissure inclination)
- ⑳ 쌍꺼풀, 눈구석주름의 유무

나. 비율

각 그림이나 사진에서 계측한 거리로 얼굴의 중요지표들간의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그들은 아래와 같다.

- ㉑ 얼굴 높이에 대한 이마 높이의 비: 눈섭활사이점(g)-머리털시작점(tr)/턱끝융기점(gn)-머리털시작점(tr)
- ㉒ 얼굴 높이에 대한 눈의 폭의 비: 윗눈꺼풀점(ps)-아래눈꺼풀점(pi)/턱끝융기점(gn)

- ㉔ 안쪽눈구석사이에 대한 눈길이의 비: 안쪽눈구석점(en)-가쪽눈구석점(ex)/안쪽눈구석점(en)-안쪽눈구석점(en)
 - ㉕ 눈길이에 대한 눈폭의 비: 윗눈꺼풀점(ps)-아래눈꺼풀점(pi)/안쪽눈구석점(en)-가쪽눈구석점(ex)
 - ㉖ 얼굴 높이에 대한 윗눈꺼풀 폭의 비: 윗눈화점(os)-윗눈꺼풀점(ps)/턱끝융기점(gn)-머리털시작점(tr))
 - ㉗ 광대활 폭에 대한 눈길이의 비: 안쪽눈구석점(en)-가쪽눈구석점(ex)/광대활점(zy)-광대활점(zy)
 - ㉘ 광대활 폭에 대한 안쪽눈구석사이의 비: 안쪽눈구석점(en)-안쪽눈구석점(en)/광대활점(zy)-광대활점(zy)
 - ㉙ 얼굴 높이에 대한 눈썹활사이점에서 코밑점까지 길이의 비: 눈썹활사이점(g)-코밑점(sn)/턱끝융기점(gn)-머리털시작점(tr)
 - ㉚ 얼굴 높이에 대한 안쪽눈구석사이점에서 코밑점까지 길이의 비: 안쪽눈구석사이 중간점(en-en/2)-코밑점/턱끝융기점(gn)-머리털시작점(tr)
 - ㉛ 안쪽눈구석사이에 대한 코방울 폭의 비: 코방울점(al)-코방울점(al)/안쪽눈구석점(en)-안쪽눈구석점(en)
 - ㉜ 광대활 폭에 대한 코방울 폭의 비: 코방울점(al)-코방울점(al)/광대활점(zy)-광대활점(zy)
 - ㉝ 입술 폭에 대한 홍순의 높이의 비: 윗입술점(Ls)-아래입술점(Li)/입구석점(ch)-입구석점(ch))
 - ㉞ 입술 폭에 대한 최대 인중 폭의 비: 인중능선점(cph)-인중능선점(cph)/입구석점(ch)-입구석점(ch)
 - ㉟ 광대활 폭에 대한 입술 폭의 비: 입구석점(ch)-입구석점(ch)/광대활점(zy)-광대활점(zy)
 - ㊱ 얼굴 높이에 대한 귀 길이의 비: 귀위점(sa)-귀아래점(sba)/턱끝융기점(gn)-머리털시작점(tr)
 - ㊲ 최대얼굴폭에 대한 아래턱최대폭의 비: 턱모서리점(go)-턱모서리점(go)/광대활점(zy)-광대활점(zy)
 - ㊳ 얼굴 높이에 대한 최대얼굴폭의 비: 광대활점(zy)-광대활점(zy)/턱끝융기점(gn)-머리털시작점(tr)
- 미인도의 얼굴이 비스듬하게 있어 광대활폭은 관자머리털 앞면에서 접선을 그어 얼굴 중앙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두 배를 하였다. 계측은 자와 측정양각기(caliper), 각도기를 이용하였으며, 개인오차 및 우발오차를 줄이기 위해 계측은 한사람이 시행하였다.

각 측정치의 비 계수는 백분율로서 평균 $\pm$ 표준편차

로 요약하였으며, 조선·일본 미인도간 그리고 조선·현대미인간의 비 계수차이는 Mann-Whitney U test를 적용하여 유의성을 결정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ver 10.1)를 이용하였으며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III. 결 과

그림이나 사진에서 계측한 거리로 계산한 얼굴의 중요지표들간의 9가지 비율에서 조선시대 미인도는 일본 에도시대미인도나 현대한국미인과 차이를 보였고, 8가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이를 보인 것은 얼굴 높이에 대한 눈의 폭의 비(ps-pi/gn-tr), 안쪽눈구석사이에 대한 눈길이의 비(en-ex/en-en), 안쪽눈구석사이에 대한 눈길이의 비(en-ex/en-en), 눈길이에 대한 눈폭의 비(ps-pi/en-ex), 얼굴 높이에 대한 윗눈꺼풀 폭의 비(os-ps/gn-tr), 얼굴 높이에 대한 눈썹활사이점에서 코밑점까지 길이 비(g-sn/gn-tr), 안쪽눈구석사이에 대한 코방울 폭의 비(al-al/en-en), 광대활 폭에 대한 코방울 폭의 비(al-al/zy-zy), 입술 폭에 대한 홍순의 높이 비(ls-li/ch-ch), 눈틈새경사도이었다.

- ㉔ 얼굴 높이에 대한 이마높이 비(g-tr/gn-tr)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34.6 \pm 2.8\%$,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는 $31.6 \pm 2.6\%$ 였으며, 한국 미인에서는 $34.6 \pm 2.1\%$ 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 ㉕ 얼굴 높이에 대한 눈의 폭의 비(ps-pi/gn-tr)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3.9 \pm 0.6\%$,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는 $3.9 \pm 0.3\%$ 였으며, 한국 미인에서는 $6.1 \pm 0.9\%$ 로 양국 미인도의 결과 보다 더 컸다. ($p < 0.001$)
- ㉖ 안쪽눈구석사이에 대한 눈길이의 비(en-ex/en-en)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90.4 \pm 3.5\%$,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는 $97.7 \pm 3.1\%$, 한국 미인에서는 $93.5 \pm 2.5\%$ 로 모두에서 안쪽눈구석 사이가 눈길이 보다 약간 더 컸으며,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 조선시대 미인도보다 더 큰 비율을 보였다 ($p = 0.017$).
- ㉗ 눈길이에 대한 눈폭의 비(ps-pi/en-ex)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23.1 \pm 2.5\%$,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는 $24.5 \pm 1.8\%$, 한국 미인에서는 $36.6 \pm 3.2\%$ 로 결과 (2)-㉔에서와 같이 양국 미인도의 결과 보다 더 컸다($p < 0.001$).

- ㉔ 얼굴 높이에 대한 윗눈꺼풀 폭의 비(os-ps/gn-tr)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11.8 \pm 1.7\%$,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 $11.6 \pm 1.5\%$, 한국 미인에서는 $5.5 \pm 0.4\%$ 로 양국 미인도에서 보다 더 작았다($p < 0.001$).
- ㉕ 광대활폭에 대한 눈 길이의 비(en-ex/zy-zy)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19.1 \pm 1.4\%$,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 $19.4 \pm 2.7\%$, 한국 미인에서는 $19.8 \pm 0.9\%$ 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 ㉖ 광대활폭에 대한 안쪽눈구석 사이의 비(en-en/zy-zy)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21.0 ± 1.4 ,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 $20.5 \pm 2.3\%$, 한국 미인에서는 $21.3 \pm 1.0\%$ 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 ㉗ 얼굴 높이에 대한 눈썹활사이점에서 코밑점까지 길이 비(g-sn/gn-tr)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35.9 \pm 0.7\%$,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 $36.7 \pm 0.7\%$, 한국 미인에서는 $31.6 \pm 1.9\%$ 로 양국 미인도에서 보다 더 작았다($p=0.002$).
- ㉘ 얼굴 높이에 대한 안쪽눈구석사이점에서 코밑점까지 길이 비(en-en/2-sn/gn-tr)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23.1 \pm 0.9\%$,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 $24.8 \pm 1.6\%$, 한국 미인에서는 $22.3 \pm 0.9\%$ 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일본, 조선, 한국 미인순으로 코길이가 짧아졌다($p=0.052$).
- ㉙ 안쪽눈구석사이에 대한 코방울 폭의 비(al-al/en-en)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98.7 \pm 1.7\%$,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 $90.5 \pm 2.4\%$, 한국미인에서는 $104.6 \pm 2.3\%$ 로 일본 미인도, 조선 미인도, 한국미인의 순서로 코방울의 비가 커졌다($p=0.004$).
- ㉚ 광대활 폭에 대한 코방울 폭의 비(al-al/zy-zy)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21.0 \pm 1.5\%$,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 $19.0 \pm 1.4\%$, 한국미인에서는 $23.4 \pm 1.7\%$ 로 일본 미인도, 조선 미인도, 한국미인의 순서로 코방울의 비가 커졌다($p=0.046$).
- ㉛ 광대활폭에 대한 입술폭의 비(ch-ch/zy-zy)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20.7 \pm 1.3\%$,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 $21.2 \pm 3.7\%$ 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 ㉜ 입술 폭에 대한 홍순의 높이 비(ls-li/ch-ch)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30.4 \pm 2.4\%$,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 $34.4 \pm 1.2\%$ 로 일본 미인도에서 약간 더 컸다($p=0.009$).
- ㉝ 입술 폭에 대한 인중 폭의 비(cph-cph/ch-ch)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22.9 \pm 2.3\%$,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 $25.7 \pm 3.0\%$, 한국 미인에서 $21.3 \pm 2.0\%$ 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 ㉞ 얼굴 높이에 대한 귀 길이의 비(sa-sba/gn-tr)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32.1 \pm 3.8\%$,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 $31.4 \pm 2.1\%$, 한국 미인에서 $31.3 \pm 3.2\%$ 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 ㉟ 최대얼굴폭에 대한 아래턱최대폭의 비(go-go/zy-zy)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89.7 \pm 3.0\%$,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 $88.9 \pm 2.7\%$, 한국 미인에서 $87.3 \pm 1.8\%$ 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 ㊱ 얼굴 높이에 대한 최대얼굴폭의 비(zy-zy/gn-tr)는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88.2 \pm 2.4\%$,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 $89.1 \pm 4.9\%$, 한국 미인에서 $85.9 \pm 4.0\%$ 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 ㊲ 눈틈새경사도: 조선시대 미인도에서는 $2.8 \pm 1.7^\circ$,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서는 $8.4 \pm 1.5^\circ$, 한국 미인에서는 $8.1 \pm 1.3^\circ$ 로, 조선시대 미인도와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 사이에, 그리고 조선시대 미인도 사이와 한국 미인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 < 0.008$).
- ㊳ 쌍꺼풀과 눈구석주름의 유무: 조선, 일본 미인도 모두에서 쌍꺼풀은 없고 눈구석주름은 있었으며, 한국 미인에서는 모두 쌍꺼풀과 눈구석 주름이 있었다(Table II).

IV. 고 찰

한국인의 미인에 대한 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지, 또 19세기의 조선시대 미인과 일본 에도시대 미인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그동안 얼굴 등 우리몸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의 관심사였으나 이를 확인할 만한 정량적 자료가 부족하였다. 저자들은 조선시대 미인도 6점과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 5점 그리고 현대 미인의 사진 9점의 얼굴 계측을 통해 조선시대 미인도와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 현대 미인을 각각 비교하여, 조선시대 미인과 일본 에도시대, 조선시대 미인과 현대 미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 비해 조선시대 미인도에서는 눈틈새경사도가 낮고, 코길이에 비해 넓은 코방울을 가지며 입술폭에 비해 얇은 홍순을 가진다. 현대 미인에

비해 조선시대 미인도에서는 윗눈꺼풀 폭이 크고, 상대적으로 눈 폭이 작으며, 얼굴폭에서 코방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작다. 또, 조선시대 미인도에서는 모두 눈구석주름은 있고, 쌍꺼풀은 없었으나, 현대 미인에서는 모두 쌍꺼풀도 있고, 눈구석 주름도 있었다(Fig. 2, 3).

미술작품에 나오는 얼굴의 형태나 표정에는 그 사람의 심성이나 마음상태가 사실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그 시대의 지향하는 바 이상형의 얼굴이 반영되기도 한다. 18세기 후반 근대미술의 시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전에는 종교적 이상형으로서의 얼굴이 그려졌던 것에 비하여, 사실적 표현이 강해져서, 미인도와 인물화가 그려지게 되었다. 사진작가가 인물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은 모델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데 비해서, 화가가 인물화를 그릴 때에는 꼭 그대로 그리지는 않으며, 자신이 마음속에 그리고자하는 이상형을 표현하려 하므로, 미인도에서 보여주는 어떤 공통의 지향상을 그 시대의 미인의 기준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⁸(Fig. 4, 5).

저자들이 측정한 미인도 이외에도 조선시대 인물화 중에는 6전의 초상화가 전해오고 있으나, 대상이 미인이 아니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대 미인의 표본 선택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 미인대회에서 1·2·3위 입상한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자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미인의

계측을 통해 현대 미인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Fig. 6). 이 연구에서 사용된 미인도의 경우, 얼굴의 크기가 작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우발오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미인도의 얼굴부분만을 확대 스캔하여 계측하였다. 대부분의 미인도가 얼굴의 정면상을 그린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그려져 있어, 광대사이폭은 직접 계측이 불가능하여 관자모발선에서 그은 접선과 얼굴 중앙선 사이의 거리로 추정하였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현대미인 사진도 정면 사진이 아닌 얼굴을 약간 비스듬하게 찍은 사진을 선택하였다. 또, 미인도와 현대미인 사진 모두에서 얼굴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계측점의 계측은 불가능하였으며, 현대미인의 사진에서 모든 사진이 활짝 웃는 얼굴이었으므로 입술 폭과 홍순에 대한 계측은 이들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빈치(Leonardo de Vinci, 1452 - 1519)는 인체에 대해 두부 및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비례를 기술한바 있고, 이것은 미술학자들에 의해 현대에 이르면서 일부 수정 보완된 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실제 해부학적으로 인체가 꼭 그러한 비율이나 형태를 갖추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는 보통 그와 비슷한 분포를 가진다.⁴ 아름다운 꽃이나 훌륭한 그림, 미스 유니버스 대회의 미인들, 도자기의 곡선, 불상의 자연스러운 안정감 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느끼는 아름다움의 대상이다.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로 황금 분할(Golden section)이다. 조화와 대칭성은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안정감은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조화는 일정한 비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에게 가장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화의 비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황금비를 찾아냈다. 그 비율의 법칙이란 직사각형에서 가로, 세로의 합과 가로의 비가 가로와 세로의 비가 같을 때이고 그 비율은 $1 : 1.168$ (약 $5 : 8$)이다. 길이의 비 $5 : 8$ 은 4000 - 5000년 전이나 되는 옛날부터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집트, 그리스, 로마로 이어졌고, 르네상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공통되는 보배로서 계승되어 왔다.

조용진 등⁴에 의하면 얼굴의 높이는 눈썹활사이점과 코밑점을 지나는 두 수평선에 의해 대략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조선시대 미인도와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 현대 미인에서 꼭 이것과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서로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아래얼굴의 길이가 윗얼굴의 길이

보다 조금 더 길며, 아래얼굴과 윗얼굴은 중간얼굴보다 더 긴 것이 보통이다.⁹ 그래서 현대 미인에서는 아래얼굴, 윗얼굴, 중간얼굴 순으로 길었고, 조선시대에는 이마가 넓고 발제선이 반듯한 것을 진수(鰐首)라 하여 미인의 요건으로 여겼고, 눈두덩이 넓은 것이 여성미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윗얼굴과 중간얼굴은 비슷했고, 상대적으로 아래얼굴은 작게 표현됐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여자들은 이마를 좁게 하고 발제선도 동그랗게 하는 것이 여성의 특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중간얼굴, 아래얼굴, 윗얼굴 순으로 작게 표현됐을 것이다.¹⁰

조선시대 미인도와 현대 미인의 눈의 형태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조선시대에서는 모두 흘꺼풀이며 눈꺼풀 틈새 높이가 낮고 눈썹이 가늘며 윗눈꺼풀 높이가 높으며 눈꺼풀틈새경사가 현대 미인에서 보다 훨씬 낮다. 조용진¹⁰은 여성미에 있어서 모성적 미를 중시했던 동양에서는 눈썹이 가늘면서 눈두덩이 넓고 눈의 경사가 크지 않은 것이 미인의 조건이 되었을 것이라 한다. 반면에 서구적인 것을 지향하는 현대의 가치관 때문에 쌍꺼풀이 있으면서, 눈 길이에 비해 눈의 폭이 30 - 36%를 차지하는 동그란 눈을 미인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 이러한 서구 지향적 관점은 눈의 각도에서도 나타나는데, 한국 사람은 대체로 7° 정도의 기울기를 갖으나, 요즘 예쁘다고 선정되는 눈의 경사 정도는 5° 로서 한국인 눈으로는 아주 쳐져있는 눈 모양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미인도에서 눈의 경사가 2.8° 로 현재 미인도의 8.1° 보다 오히려 작아 이것이 사진과 그림의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즉, 가치관이나 미인관이 서구지향적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한(韓)민족의 모습이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대 미인의 사진 상에서는 한국 사람의 평균 경사인 7° 에 가깝게 나왔고, 조선시대에도 눈의 경사가 크지 않은 것이 온화한 여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림인 미인도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2.8° 로 표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⁰

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은 코의 형태 형성에 관여하는 몇 가지 요소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코의 길이, 콧방울의 폭, 코의 높이가 주 요소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미인도와 현대미인에서 코의 길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안쪽 눈구석사이에 대한 콧방울의 폭과 광대활폭에 대한 콧방울의 폭은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더 작았다. 이 결과는 미인관의 서구 지향적 변화와 반대되는 것으로, 서양인의 코는 콧구멍이 세로로 길면서 콧방울이 작은 것이 특

정으로, 이런 서양인의 코를 선호하는 현대미인에서 콧방울이 더 작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선시대에서도 미인의 기준은 콧방울이 작은 앳되고 고즈넉한 인상임을 알 수 있었다.¹⁰

얼굴의 폭에 대한 코폭의 비율에 대해서는 조용진⁴은 코폭의 광대활폭의 비는 26.11 ± 0.12 로 본 연구의 현대미인 계측치 22.44 ± 1.7 보다 더 컸으나 광대활폭의 계측방법이 달라 서로의 비교는 의미가 없었다.

입술에 대한 조선시대 미인도와 현대미인간의 비교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대미인의 사진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계측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귀의 길이에 있어서는 조선시대 미인도와 현대미인에서 모두 얼굴 길이의 약 1/3을 차지했으며, 조용진 등⁴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예로부터 달걀형 얼굴이 미인형이라 해서 비교적 가름한 얼굴을 미인으로 꼽았고, 가름하다는 얼굴형은 턱 모양에 크게 좌우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얼굴의 가로와 세로 비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조용진¹⁰에 의하면 한국 여자들의 얼굴은 가로와 세로의 최대폭 대 길이비가 평균 1:1.3이고, 미스코리아의 평균은 1:1.5로서 달걀보다 훨씬 가름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1.1과 1:1.2로 조선시대 미인도보다 현대미인의 얼굴 길이에 대한 얼굴 폭의 비가 더 작기는 하였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V. 결 론

조선시대 미인도(19세기) 6점과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18세기) 5점,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 미인대회에서 입상한 9명을 대상으로 20항목의 안면부 계측을 통해 조선시대 미인도와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사이의 차이점과 조선시대 미인도와 현대 미인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본 에도시대 미인도에 비해 조선시대 미인도에서는 눈틈새경사도가 낮고, 코길이에 비해 넓은 코방울을 가지며 입술폭에 비해 얇은 홍순을 가진다. 현대 미인에 비해 조선시대 미인도에서는 윗눈꺼풀 폭 크고, 상대적으로 눈폭이 작으며, 얼굴폭에서 코방울이 차지하는 비

율이 더 작다. 또, 조선시대 미인도에서는 모두 눈구석 주름은 있고, 쌍꺼풀은 없었으나, 현대 미인에서는 모두 쌍꺼풀도 있고, 눈구석 주름도 있었다.

REFERENCES

1. 조대환, 함기선, 조용진: 한국청년들의 미추관에 대한 생체 계측학적 분석.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6: 926, 1989
2. 김영호, 김용성, 이세일: 한국여성의 상안검에 대한 생체 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2: 325, 1985
3. 김철주, 함기선, 김 윤, 조용진: 청년기 한국인 안면에 대한 생체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5: 427, 1988
4. 위성신, 함기선, 이재웅, 조용진: 한국미인의 생체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8: 283, 1981
5.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풍속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2, p 177
6.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서울, 한길아트, 2000, p 406
7. 국립중앙박물관: 일본미술명품, 서울, 솔, 2002, p 268
8. 황건: 인물화에서 찾아본 한국인 성인여자 쌍꺼풀의 빈도 및 형태: 대한민국 미술대전 1982, 1990, 2001년도 분석.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8: 13, 2002
9. 강진성: *최신성형외과학*,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5, p 12
10. 조용진: *우리 몸과 미술*, 서울, 사계절, 2001, p 117, 134